

- 본문 : 에베소서 6장 10~13절
- 제목 :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마음의 문을 열며

교회는 아직 세상에 남아 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아직 다 정복된 것이 아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와 세상, 영과 육,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에는 보이지 않게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남아 있는 택함 받은 자들을 일깨우고 계신다. 교회는 승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못하면 패배자처럼 짓밟힐 수 있다. 승자는 승자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전쟁을 하는 군사가 꼭 갖추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인가? (10~11절)
2. 일반적인 세상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은 체력을 강하게 단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신을 갑옷으로 싸고 칼과 창으로 중무장을 해도 자유자재로 무기를 쓸 수 있고 오래 버틸 수 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체력을 강하게 단련할 수 있는가?
• 에베소서 3:16 • 사도행전 1:8 • 스가랴 4:6
3.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진다’(10b)는 것은 날마다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언젠가 한 번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라.
• 당신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당신은 매일 이 능력에 사로잡힌 강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는가?
4.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11, 13절)
5.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해 보라.
• 마태복음 24:24
• 고린도후서 11:14~15 (참고. 고후2:11)
6. 12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야 할 전투의 성격과 대상을 명료하게 설명한다.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설명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권에 속한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을 상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놓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는 자주 싸움의 대상을 잊고 있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힘으로 는 상대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대적을 앞에 두고 너무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 반대로 간교한 마귀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물리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례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라.

· 말씀기도제목

1. 영적인 적의 실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매 순간 입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2.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입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3. 송원교회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부름 받았을 때,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반드시 이기는 자”임을 확신케 하옵소서.